

# 박수진 PARK, SUJIN

-세종대 일반대학원 회화과 서양화 전공 석사 조기졸업

/개인전/

2021 갤러리너트 선정작가<지쳤지만, 팬츠를 겁니다.>전

2022 H갤러리<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전

2023 석사청구전 세종아트갤러리<이루 말할 수 없는>전

2024.3/25-4/1 아트로직스페이스 선정작가<만질 수 없는, 필연적인>전 예정

2024.11/27-12/2 리수갤러리 우수작가지원<그 속박의 틀 바깥으로>전 예정

/그룹전/

2019 창작과시선(홍익대 현대미술관 1관)

2019 상상연대6전(57th갤러리)

2020 상상연대7전(57th갤러리)

2021 봄바람(홍익대 현대미술관1관)

2022 빈칸아트페스티벌(LAYER 57)

2022 계절산책(구울담갤러리,경기)

2022 ASYAAF아시아프 부문 참여 작가 선정(홍대 홍문관)

2022 제4회 art bridge부스전(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2022 제4회 아트락페스티벌 작가선정(에코락갤러리온라인)

2022 전시의 숲에서 길을 묻다 展(리수갤러리)

2022 제5회 제주바람展(서귀포예술의전당)

2022 SEOUL ART SHOW(삼성동코엑스)

2023 킵티크#0001(다다프로젝트)

2023 진관홀401호(세종아트갤러리)

2023 제6회 제주바람展(서귀포예술의전당)

2023 아시아호텔아트페어(부산파라다이스호텔)

2023 ASYAAF아시아프 부문 참여 작가 선정(홍대 홍문관)

2023 벅크아트페어(세텍컨벤션센터)

2023 킵티크#0002(갤러리아미디)

2023 라트기획전 ‘일렁이는순간’ (갤러리라보)

2023 December&Artist Exhibition(리수갤러리)

2023 Holiday(vvs 뮤지엄)

2024 제8회 제주바람展(서귀포예술의전당)예정

2024 [ART SHOPPING]프랑스파리(Carrousel du LOUVRE)예정

/수상/

2020 제49회 구상전 우수상(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2021 제50회 구상전 입선(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2021 제57회 경기미술대전 입선(양평군립미술관,경기)  
2021 한국미술진흥원 특별기획전 우수작가상  
2022 제51회 구상전 장려상(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2022 제7회 서리폴artforart대상전 입선(서리폴청년아트갤러리)  
2022 한국미술진흥원 특별기획전 특별상  
2023 제2회 아트코리아 미술대전 특선(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2023 제8회 서리폴artforart대상전 입선(한전아트센터갤러리)  
2024 제2회 한국여성작가회화공모전및파리200K-WOMEN 입선(인사동한국미술관)  
/연락처/

이메일 [evi0402@naver.com](mailto:evi0402@naver.com)

<https://www.instagram.com/seohyangxpark Sujin>

#### <작가노트>

대중매체의 급격한 확산과 풍요로운 물질문명 속에서 대중은 내적욕망과 주체가 직면하는 객관적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좌절한다. 꿈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점차 피폐해지며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독과 권태로운 일상과, 그 일상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 긴장 등을 인간이 만들어낸 공간으로 표현한다.

인공적인 공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안전한 요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독을 부르는 감옥이기도 하기에, 그 양면성을 드러낸다. 현대인은 공간을 통해 무언가로부터 보호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그곳에 자신을 가두고 소통을 거부한다. 세상과 단절하고 견고한 공간 속에 갇혀서 상처 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방어기제를 은유한다. 갇힌 주체는 점차 피폐해지고 공허해져만 가는 것을 색으로 표현한다.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독 외에 인간성이 위축되는 세태 속에서 점차 익명화되어 가는 주체를 그림자의 형태로 보여준다. 그림자로 대변되는 텅 빈 공허는 인간이 자신을 보편화 대중화 시키며 자신의 안에 있는 진짜 실재를 보지 않고 외면하려는 심리상태의 표현이다.

그림 속의 모든 사물은 서로 관계를 맺지 않으며 서로 겹도는 듯한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공간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닌 연극무대처럼 묘사되는데, 이미지의 파편들이 주는 친숙함과 병치 혹은 대비의 낯설음의 시각적 교란을 통해 심리적 혼돈을 불러일으킨다. 개인주의, 개인의 고독, 사회적으로 연대하지 못하는 불안을

폭로하는 장치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진짜 그림자를 가진 익숙한 오브제는 현재의 실재를 드러낸다. 그림자를 지닌 사물은 무기력하고 지쳐 있는 고립된 인간과 심리적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고독과 정신적 가치를 표현한다. 이는 작가의 자화상이며, 주름처럼 세밀하게 드러나는 형태의 세부는 인간 삶의 고통을 보여준다.

공간으로 들이치는 빛의 존재와 그로 인해 빚어지는 그림자의 어우러짐은 그나마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다. 삭막한 도시 속으로 밀려드는 자연의 자유로움을 빛으로 표현하고, 그로 인해 공간 안으로 겹쳐지는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빚어낸 불규칙한 면의 중첩이 예상치 못한 공간의 변형을 야기한다.

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낮설고도 익숙한 화면을 구성하고, 그로 인해 수용자의 익숙함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